

무대뽀에서 펴

## 아줌마의 현대미술 토크쇼

아줌마

들어가는 글

이 텍스트는 아트 인 라이프(ART in LIFE)의 주최로 『이것이 현대미술이다!』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진 세미나를 글로 옮긴 것이다. 그 세미나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들에 관해 아줌마와 관객들이 토론한 것으로 10차례(2002. 6월 25일, 7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8월 5일, 12일 등 매주 월요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당시 토론 대상으로 사용된 작품들은 지난 6월 16일부터 2개월간 열렸던 『리빙 퍼니처(LIVING FURNITURE)』에 전시된 작품들 중의 일부이다. 이 텍스트는 당시 녹음테이프에 녹음한 토론을 옮겨 적은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옮겨 적기 덕분에 지금은 재생 불가능하게 파손된 녹음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이 있다. 이 텍스트는 당시 생생한 목소리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녹음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 첨가와 삭제의 교정이 있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당시 참여한 관객들의 이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작명했다.

-----  
아줌마

안녕하세요?

전 줌마라고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현대미술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우리 현대미술 작품에 관해서 토론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세미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죠.

그러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말하겠지'라든지 '혹 이런 말을 하면 웃을지 몰라'라고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느낀 점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현대미술이다!'가 세미나로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말하는 이가 따로 있고 듣는 이가 따로 있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토크'거든요.

자, 그럼 토크를 시작할게요.

\* 거실 광경 사진(특히 벽면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찍은 사진. 거실 포스터도 가능)

아줌마

우선 거실에 있는 작품들 중에 그림 한 점을 선택해 볼까요?

어떤 그림에 대해 먼저 토론해 볼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단지 관객들은 서로 무슨 말인가 주고받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어느 그림도 제안하지 않는다)

아줌마

그냥 궁금한 그림이 있으면 한 점 선택해 보세요?

아니면 맘에 드는 그림이 있다면...

(...)

아줌마

음... 유승호씨의 '몽실몽실' 옆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사실화

아뇨. 김정선이 그려진 기하학적인 그림을 먼저 봤으면 해요.

아줌마

이 그림을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화

예.

\* 김용익의 그림(이미지만 올릴 것. 제목은 올리지 말 것)

아줌마

왜죠?

사실화

붉은 단색 그림보단 그 그림엔 선이라도 있잖아요.

(ㅎㅎㅎ)

아줌마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경원대 회화과 교수인 김용익씨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제목도 유승호씨의 '몽실몽실'처럼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

아줌마

이런 그림 앞에서 우린 흔히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나서는 그것에 관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미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신경을 쓰면서까지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린 이런 그림을 쉽게 지나쳐 버리곤 해요.

그렇지 않나요?

추상파

솔직히 저는요, 저 그림을 '그림'이라고 부르기보다 차라리 '그래픽'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줌마

왜죠?

한국화

그건 적어도 저에게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걸 매개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유승호씨의 그림은 적어도 저에게 어떤 상상력이나 생동감을 생각하

게 하지만, 저 그림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줌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양화

저 그림은 그림으로써는 뭔가 결핍된 것처럼 보여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

말씀하세요.

우린 이곳에서 각자가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하는 거니까요.

서양화

저에게 저 그림은 마치 포장지처럼 보여요.

아줌마

김용익씨의 그림을 그래픽이나 포장지처럼 보인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나요?

땡이

단순함...

짱구

조용합니다.

아줌마

단순하고 조용하다.

이번엔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본 걸 말씀해 주실래요?

보초

2개의 수직선요.

아줌마

그게 수직선으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걸 수직'선'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거죠.

이뿐이

사실 '선'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게 '면'적인 면도 있어요.

마치 막대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걸 수직면이라고 부르기도 좀 모한 것 같아요.

아줌마

그래요.

우리가 대화하기 편하도록 그럼 그걸 수직선으로 부르도록 하죠.

그 2개의 수직선이 여러분께 어떤 느낌을 주나요?

된장

오른쪽 아래의 수직선이 화면 중앙의 수직선을 따라가는 듯한...

그래서 방향감 같은 걸 느끼게 해요.

고추장

2개의 수직선이 닮아 보이네요.

어느 한쪽이 더 크거나 작음이 없이...

닮은 2개의 수직선이 떨어져 있지만 함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멸치

어, 중앙의 수직선보다 오른쪽 밑 모서리에 있는 수직선이 더 작게 보이는데요.

길이가 아니라 폭이...

아줌마

그래요. 고추장과 멸치가 서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멸치에겐 오른쪽 하단 수직선의 폭이 중앙 수직선의 폭보다 작게 보여요(고추장은 그림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멸치는 그림 정면에 위치해 있다). 그 이유는 이 그림 특히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수직선이 캔버스의 측면까지 그려졌기 때문이죠. 멸치님, 고추장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실래요.

(멸치가 고추장이 있는 곳으로 간다)

아줌마

어때요?

멸치

그래요. 이제 줌마씨가 한 말을 이해하겠어요.

아줌마

물론 정확히 따진다면, 오른쪽 하단의 수직선은 중앙의 수직선의 폭보다 약간 좁아요.

그리고 측면으로까지 그려진 그 수직선은 중앙의 수직선과는 달리 마치 자로 대로 그린 것처럼 직선이 아니예요.

왜일까요?

장구

혹시 측면에서부터 그 수직선이 나타나는 걸 표현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닐까요?

아줌마

흥미있는 해석이군요.

그럼 그 측면도 이 그림의 일부가 되겠네요, 그쵸?

(웅성웅성)

아줌마

좋아요.

그 점에 대해선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아까 말하다만 걸 더 읽어보죠.

자, 2개의 수직선이 여러분께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피아노

두 남녀 관계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이(중앙의 수직선)를 사랑하는 철수(오른쪽 아래 수직선)... 근데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인지도...

발래

저는요, 그 2개의 수직선이 한결같은 맘을 바라는 두 사람처럼 느껴져요.

오해나 갈등 때문에 아무런 방해 없는 곳에서 같이 있는 존재 말이죠.

아줌마

여러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2개의 수직선 사이의 관계가 될 것 같네요.

혹시 또 다른 느낌을...

빛소리

웬일인지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다정하게 대화하는 친구같은 느낌이 듭니다.

촛불

캔버스에 그은 2개의 수직선, 하지만 비어있지 않고...

멈춘 듯 하지만 위로 상승하려는 수직선들은 주변을 울리고 퍼트려 온 바탕을 채우는 것 같  
아요.

아줌마

그 2개의 수직선이 모두 위로 상승하는 것으로만 읽혀지나요?

지영

아뇨.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상승과 하강 두 방향으로 열려져 있는 걸요.

수정

사람마다 출발점, 시작점이 다를 수 있잖아여.

여기 백색의 캔버스 위에 2개의 수직선처럼,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만,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여기에 그려진 그림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여.

나의 인생을 열썬미 그려나가야지여!!

중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여.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여.

그것대로 다시 그려나간다면 그것 또한 멋진 그림이 될 수 있을테니...

철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저 그림이 우아하기도하구 귀엽기두 하구 심오한 뜻이 있을 꺼 같기  
두 하구 기냥 장난 섞인 거 같기두 하구...

아줌마

좋아요.

여러분은 한결같이 김용익씨의 그림에서 2개의 수직선만 보셨어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도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아줌마

2개의 수직선 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나요?

영미

좀 멀어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그 2개의 수직선에 그림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줌마

그래요.

그 2개의 수직선엔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걸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김용익씨의 그림을 가까이 더 가까이 접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관객은 한 걸음씩 그림 가까이 다가간다. 그림 가까이 다가간 관객은 문가 열심히 관찰한다. 근데 유승호의 '몽실몽실'처럼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지 적잖은 시간을 소요한다. 따라서 모든 관객이 김용익의 그림을 보기까지는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 여기에 김용익의 그림을 확대해서 복사할 것

아줌마

잘 보셨나요?

(...)

아줌마

여러분, 이 그림 안에서 제목을 보셨죠?

(...)

지원

혹시 화면 왼쪽 밑변에 쓰여진 가까이...더 가까이...

아줌마

예, 바로 그것이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제목 다음에 작품제작일(2001. 4. 18)과 작가의 사인(Kim. y. i)이 적혀있죠.

작품 제목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김용익씨의 '가까이...더 가까이...'는 그림 가까이 더 가까이 접근해서 보아야만 온전히 작품감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몽실이

마치 유승호씨의 '몽실몽실'처럼 말이죠?

아줌마

예.

유행파

혹시 현대미술에서 그런 것이 유행인가요?

아줌마

그런 거라요?

유행파

예전 그림은 일정한 거릴 유지해서 감상했잖아요.

근데 유승호씨나 김용익씨의 그림은 그림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그림이 의도하는 바를 모르게 된다, 이 말이죠.

아줌마

유승호씨의 '몽실몽실'이나 김용익씨의 '가까이...더 가까이...'는 일정한 거리에서 볼 경우 특별한 그림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되죠.

말하자면 그 두 작가는 우리 관객에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보초

마치 일상의 단조로움에도 색다른 걸 찾을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아줌마

jem있는 말씀이네요.

자, 그림 유승호씨의 그림보다 더 가까이 김용익씨의 그림에 접근해 보도록 하죠.

김용익씨의 그림은 아주 가까이 가야지만 온전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화면 중앙의 수직선과 오른쪽 밑 모서리에 있는 수직선의 그림자 같은 건 무얼 표현한 것 같나요?

\* 여기에 화면 중앙의 수직선 부분을 확대해서 복사할 것

따지자

검정 수직선의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지금 저 상태가 아닌 이전에 검정으로 그린 후 다시 그 위에 백색을 칠해 얹게 드러난 것 같아요.

아줌마

예, 잘 보셨습니다.

근데 그 흐린 부분은 마치 자대고 그린 것처럼 검정 수직선과 같이 보이나요?

한국화

아뇨.

그 흐린 선은 붓으로 그린 것처럼 저에게 보였어요.

아줌마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씨는 백색 캔버스에 붓으로 수직선을 긋고/그리고 난 후 그 위에 백색을 칠하고 다시 그 위에 수직선을 그려 놓았다, 맞나요?

('예'라고 다수가 동의한다)

아줌마

여러분, 마치 자를 대고 그린 것 같은 이 2개의 검정 수직선은 어떻게 작업한 걸까요?  
검정 수직선 밑의 흐린 수직선은 붓으로 그린 것으로 읽었는데 말예요.

서양화

제가 생각하기에 마스킹 테이프로 작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주변을 붙여 저 검정 수직선만큼 비워 둔 상태에서 붓으로 그렸다고 말이죠.

아줌마

증말 기막힌 설명이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라고 몇 관객이 동의한다)

\* 여기에 화면 오른쪽 수직선 부분을 확대해서 복사해 놓을 것

아줌마

이번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좀더 세심하게 보셨는지 보겠어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검정 수직선 밑에 흐린 수직선 있잖아요.

그 수직선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나요?

사실과

그 흐린 수직선은 붓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린 것처럼 보여요.

아줌마

왜죠?

사실과

위 부분이 아래 부분보다 좀더 진하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수직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츰 사라져 가는 듯이 보이고요.

아줌마

정말 세심한 관찰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럼 이번엔, 왜 그 수직선이 차츰 사라져 가듯 보였을까요?

추상과

제 생각에 그건 붓에 검정물감을 묻혀 한 번에 위에서 아래로 그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줌마

검정물감을 붓에 묻혀 한 번에 아래로 그었다고 위에서부터 차츰 검정물감의 흔적이 사라질까요?

추상과

아마 작가는 붓에 많은 검정물감을 물힌 게 아닌 것 같아요.

작가는 매우 적은양의 검정물감을 붓에 묻혀 위 부분에서 아래로 수직선을 그으면 차츰 물감이 소비되면서 나중엔 물감의 흔적도 없이 헛붓질만 한 것 같아요.

아줌마

정말 추상파님의 설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예'라고 다수가 동의한다)

아줌마

음...

그럼 그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얇은 수직선에 어떤 또 다른 특별한 걸 발견하신 건 없나요?

지영

첨엔 잘 몰랐는데 세심히 보니까 그 수직선의 위 부분에 연필같은 걸로 가냘프게 그린 선이 있더군요.

아줌마

쩍! 할 말 없군요.

아니,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지영 ...

아줌마

왜 그 얇은 수직선 위 부분에 작가는 연필로 가늘게 선을 그린 걸까요?

지영

제 생각에 그건 그 얇은 수직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위 부분만 가늘은 선으로 그린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 연필로 그린 부분이 바로 그 붓자국의 윤곽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 같아요.

아줌마

짹짹!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줌마

질문이에요?

지영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실 것이 있단 말인가요?

지영 예.

다름이 아니라 그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수직선 부근(연필로 윤곽선을 그린 왼쪽 부분)에 또 다른 가느다란 선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것도 작가가 의도한 걸까요?

아줌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요. 만약 마님께서 김용익씨의 다른 그림들을 보신다면 그런 가느다란 선같은 걸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참엔 그게 연필선인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연필선과 다른 걸 느낄 수 있더군요.

특히 이 그림에 그려진 연필선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은 연필선이 아니라 일종의 '털'이에요.

물론 그건 머리카락보다 얇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

아줌마

여러분의 상상력에 맞기겠어요.

여러분,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뭘 의도했는지 궁금하시죠?

('예'라고 몇 관객이 답변한다)

아줌마

저, 실례하지만 이번엔 김용익씨가 쓰신 작품설명서를 읽어 주실래요?

(황래은 학예연구원이 작품설명서 자료철을 꺼낸다)

황래은

내 작업은 말하자면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 권력'에 흠집내기이다.

모더니즘에 정면으로 반격하여 뒤엎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내부에 균열과 파열구를 만드는 작업이다.

모더니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직 균열과 파열구를 열어 숨쉴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선택이다.

즉 페미니즘적 전략이다.

혁명은 남근적이다.

이제 혁명은 불가능하다.

헤테로토피아...

내 작품에 보이는 음모나 가느다란 선, 희미한 글씨, 흐릿한 얼룩 등은 이러한 헤테로토피아, 대항 배치의 인덱스들이다.

이러한 대항 배치가 기존의 배치 '안'에 있듯이 나의 작업도 모더니즘 '안'에 있다.

모더니즘 안의 이질공간...

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기존의 배치로부터 위협과 유혹을 받으며 나의 삶은 분열증을 일으킨다.

어지럽다... 오늘밤에도 또 나는 약을 먹어야한다.

수정

줌마씨, 혹시 그 '털'이라는 게 음모(陰毛)아닌가요?

아줌마

맞아요.

역시 우덜 관객들은 날카롭군요.

작가 김용익씨의 작품설명 잘 들으셨지요?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짱구

설명이 그림보다 더 어려워요.

땡이

작가는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 권력에 흠집내기'라고 자신의 작업 목적을 말했는데, 그게 뭘 뜻하는 거죠?

아줌마

글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그래요,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 도판을 한 번 보세요.

(줌마는 도판 하나를 관객들에게 보인다. 근데 줌마가 보여준 도판을 아직 찾지 못해 그와 비슷한 도판을 대신 이곳 게시판에 올린다. 그림은 비슷한데 획의 위치가 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 이우환의 '조응' 도판(2개의 획이 있는 도판)

(그 도판과 비슷한 도판이 한짐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 그걸 대신해서 올렸으면 하는데)

아줌마

이 그림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우환씨의 '조응'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 분은 얼마전에 호암문화재단으로부터 예술가상을 받으셨구요, 일본의 세계예술가상도 받으신 분이예요.

한 마디로 유명 작가죠.

흔히 이우환씨는 작고하신 김환기씨나 윤형근씨 그리고 박서보씨 등과 함께 한국 모더니즘 미술의 주자로 불립니다.

따라서 김용익씨가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 권력에 흠집내기'라고 말한 걸 고려한다면, 이우환씨의 '조응'이 김용익씨의 '가까이... 더 가까이...'의 모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화

그럼 김용익씨의 '가까이...더 가까이...'가 이우환씨의 '조응'을 흠집 낸 건가요?

아줌마

흠집을 낸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우환씨의 '조응'과 김용익씨의 '가까이...' 사이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국화

백색바탕과 2개의 선이요.

지선

이우환씨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2개의 선은 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철수

그럼 그게 점인가요?

찬주

점도 아니지만 선도 아닌 점과 선 사이의 애매한...

영미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줌마

왜죠?

영미

저건 붓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그은 거잖아요.

물론 길지는 않지만 짧게 그은 거죠.

그러니 점보다 선에 가깝다고 봐요.

아줌마

좋아요.

그러면 '조웅'의 선과 '가까이...'의 선 사이엔 공통점이 없나요?

영미

김용익씨의 그림에서 검정 수직선 말고 그 밑에 희미한 선있잖아요?

그 선과 이우환씨의 선이 닮은 거 같아요.

김용익씨의 그 선도 붓으로 짧게 그린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줌마

좋아요.

여러분은 '조웅'과 '가까이...' 사이의 공통점으로 백색바탕과 2개의 선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조웅'과 '가까이...' 사이에 차이점은 뭘까요?

창식

선의 방향과 화면 구성이 달라 보이네요.

아줌마

화면 구성이라면, 그 선들의 배치가 다르다는 걸 뜻하나요?

창식

예, 그 선들은 각기 다른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딩크

혹시 이우환씨 그림들 중에 2개의 선이 김용익씨가 그린 그림처럼 위치된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줌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우환씨 그림들 중에 그런 구성의 그림은 없어요.

이우환씨는 항상 선들을 화면 안에만 위치시켜요.

특히 김용익씨가 화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의 측면에도 그려놓았는데, 그런걸 이우환씨 그림을 모조리 조외한다고 하더라도 찾아볼 수 없어요.

명보

있잖아요.

이우환씨가 그린 저 '조응'요.

그걸 김용익씨가 그린 '가까이...'처럼 옮겨 놓으면 딱 맞을 거 같아요.

아줌마

그러니까 이우환씨의 '조응'에 있는 오른쪽 하단의 선을 캔버스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위치시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선이 화면 중앙쯤에 위치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보

예.

아줌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세요?

('예'라고 다수 관객이 동의한다)

아줌마

참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자, '조용'과 '가까이...'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은 없나요?

(...)

아줌마

좋아요.

여러분은 '가까이...'와 '조용' 사이의 차이점을 선의 방향과 선의 위치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백색바탕과 2개의 선을 공통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게 될 것 같네요.

왜 김용익씨는 '조용'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선 위에 백색을 칠하고 직사각형 모양의 수직 선을 그린 걸까요?

현주

그건 아까 말했던 김용익씨의 '가까이...'가 이우환씨의 '조용'을 흠집 낸 걸...

아줌마

그래요.

그걸 김용익씨는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 권력에 흠집내기'로 진술했던 거죠.

김용익씨는 '모더니즘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분은 균열과 파열구를 열어 숨쉴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균열과 파열구를 어디다 만들거죠?

추상화

모더니즘 내부요.

그러니까 이우환씨의 '조응'에 균열과 파열구를 만든 게 아닐까요?

아줌마

그래요.

정말 기막힌 해석이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김용익씨의 '가까이...'를 처음 봤을 때 하신 말씀어요, 그래픽이나 포장지 혹은 그림에 뭔  
가 결핍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뇨’라고 다수의 관객이 대답한다)

아줌마

좋아요.

그럼 이번엔 어떤 작품을 볼까요?

거실에서 부엌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정아

질문이 있어요.

아줌마

예, 말씀하세요.

정아

김용익씨의 작품설명 중에 '헤테토피아'인가 하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아줌마

아,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요?

정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명수

유토피아의 반대 용어가 아닌가요?

아줌마

그래요.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어입니다.

흔히 그건 별로 주목받지 못한 공간을 뜻한다고 해요.

며 옛날엔 중요한 곳이었지만 현재 별볼일 없는 공간으로 치부되기도 한다더군요.

근데 김용익씨는 헤테로토피아를 '모더니즘 안의 이질공간'으로 말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거죠?

(...)

아줌마

좋아요.

그럼 우선 김용익씨 그림과 관련된 것부터 살펴보죠.

김용익씨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음모나 가느다란 선, 희미한 글씨, 흐릿한 얼룩 등을 대항 배치의 인덱스, 헤테로토피아라고 작가는 말했어요.

어느 분이 그걸 이 '가까이...'에 적용해 보시겠어요?

수현

작가의 말에 의한다면, 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음모나 가느다란 선, 희미한 글씨로 쓴 제목이 헤테로토피아가 아닐까요?

아줌마

그러면 그 헤테로토피아는 무엇에 대항하는 건가요?

수현

유토피아요.

아줌마

그래요.

그럼 그 유토피아를 이 '가까이...'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양과

혹시 김용익씨가 이우환씨의 그림을 유토피아로 상징한 것이 아닐까요?

아줌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양과

만약 그렇다면 '가까이...'에서 유토피아는 김용익씨가 그린 이우환씨의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아줌마

매우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제가 님의 해석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를 말해보겠습니다.

김용익씨가 백색의 캔버스에 처음 붓으로 그린 그러니까 이우환씨의 그림을 흉내내서 그린 그림이 유토피아다, 이 말인가요?

양과

예, 맞아요.

아줌마

그러면 김용익씨의 '가까이...'에는 헤테로토피아뿐만 아니라 유토피아도 동거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우환씨의 '조응'을 흉내낸 그림은 유토피아인 반면, 그 위에 백색을 칠하고 검정 물감으로 그린 2개의 수직선과 연필선 그리고 음모 등이 헤테로토피아라고 말이죠.

이제 접수되었나요?

('예'라고 다수 관객이 대답한다)

아줌마

자, 그럼 이제 다른 작품을 볼까요?

철수

잠깐요.

아까 줌마씨께서 김용익씨의 '가까이...'의 화면 측면도 그림의 일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아줌마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의 특히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그려진 수직선있잖아요.

그 수직선이 측면으로까지 연장되어 그려져 있는데, 그 연장된 측면도 그림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측면은 그림의 일부가 아닌가요?

(...)

아줌마

그럼 그 측면에 그려진 걸 삭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주

만약 그걸 삭제한다면, 수직선은 단지 화면 위에만 있게 되겠죠.

아줌마

근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 측면까지 그 수직선을 연장했기 때문에, 마치 그 수직선이 측면에서부터 나타나는 걸로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럼 측면의 선을 삭제한다면, 이 수직선은 측면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닌 셈이 되겠군요.

그쵸?

('예'라고 몇 관객이 말한다)

아줌마

아까 논의했던 헤테로토피아를 상기한다면, 바로 이 측면은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셈이에요.

목걸이

왜죠?

아줌마

캔바스의 측면은 회화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이니까요.

진주

그러면 작가는 회화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캔바스의 측면을 그림이 그려지는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건가요?

아줌마

그런 셈이죠.

목걸이

그래서 저 그림은 액자를 끼우지 않은 건가요?

아줌마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작가가 이 그림에 액자를 끼울 걸 생각했다면, 굳이 이 측면에 그림을 그렸을 것 같나  
요?

(‘아뇨’라고 몇 관객이 대답한다)

아줌마

시간을 보니 남은 시간이 얼마 안되네요. 그 남은 시간으로 다른 작품 읽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쁜이

아쉽긴 하지만, 시간을 꼭 채워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지자

만약 제가 혼자 저 그림을 감상하고자 했다면, 십중팔구 저는 저 그림에 관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된장

혹시 우리가 보았던 김용익씨의 '가까이...'에 대해 줌마씨께서 덧붙여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줌마

좋아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김용익씨의 '가까이...'를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로 읽어보았는데, 그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 사이엔 무엇이 있죠? 아무 것도 없나요?

(웅성웅성)

아줌마

김용익씨는 먼저 이우환씨의 '조응'을 훑내내어 그리고 난 다음 무엇을 했죠?

나

그걸 백색으로 칠했어요.

아줌마

그래요. 백색으로 지웠어요. 물론 완전히 지운 건 아니지만.

근데 김용익씨는 백색으로 선 주변만 지운/그린 건가요, 아니면 화면 전체를...

라

화면 전체요.

아줌마

좋아요.

그러면 유토피아(이우환씨의 '조음'을 흉내낸 그림)와 헤테로토피아(음모나 가느다란 선, 희미한 글씨로 쓴 제목이 있는 그림) 사이엔 모가 있는 거죠?

마

백색의 화면이요.

아줌마

그래요. 백색의 화면이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 사이에 위치해요. 근데 그 백색은 불투명이 아니라 적어도 반투명해요. 그죠?

(‘예’라도 몇 관객이 답변한다)

아줌마

근데 왜 김용익씨는 그걸 반투명하게 표현했을까요?

라

밑에 그런 그림을 드러내고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줌마

그래요. 근데 왜 밑에 그런 그림을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라

그게 드러나야 작가가 의도한 바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줌마

그럼 작가는 뭘 의도한 것일까요?

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우환씨의 '조응'을 흠집내기 위해서라고요.

아줌마

그래요. 이우환씨의 '조응'을 흠집내기 위해 김용익씨는 백색으로 칠해 밑그림(이우환씨의 '조응'을 흉내낸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그 백색화면은 모죠? 그건 유토피아인가요, 헤테로토피아인가요?

(...)

아줌마

한 번 이런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 그 백색을 거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

거울이요?

아줌마

예, 거울이요.

라

만약 그걸 거울로 본다면, 마스킹 테이프로 그린 수직선이 실체가 되고, 붓으로 그린 선이 가상이 되지 않을까요?

마

근데 실제와 가상이 다르잖아요?

아줌마

그래요.

마

그러니 그 백색화면이 거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줌마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그림 실제인가요?

마

그건 아니지만... 거의 같아 보이잖아요?

아줌마

그래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거의 같아 보여요. 하지만 '거의 같아 보인다'는 것이 곧 '같다'는 아니잖아요?

(...)

아줌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작가 김용익씨가 거울(백색화면)을 통해 실제와 가상을 표현하기 위해 그 선들 사이에 차이를 주었다는 거죠.

아

좋아요. 만약 그 백색화면이 거울이라고 해도, 가상의 위치는 백색화면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 그림에서는 백색화면 뒤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줌마

여러분, 거울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죠.

하

유리 뒤에 수은을 발라 만들죠.

아줌마

그래요. 유리 뒤에 수은을 발라 만든 것이 거울이에요. 근데 그 유리는 약간의 두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울에 비친 가상은 거울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 뒤에 있죠. 수은이 발라진 곳에 말예요. 한 번 기억해 보세요. 욕실의 거울에 붙은 치약어요. 실제 치약은 거울 표면에 붙어있지만, 우리가 거울에서 보는 가상은 거울 뒤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라고 몇 관객이 대답한다)

아줌마

그러면 그 두께가 있는 거울은 유토피아인가요, 아니면 헤테로토피아인가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 사이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요?

땡땡이

줌마씨 머리가 아파요.

아줌마

좋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